

경산성, 부품소재 서플라이체인 지원 대책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동북대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부품소재의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한 국내입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(2012.2.2)
- 경산성의 국내입지 강화대책은 국내생산거점의 투자환경(전력부족, 엔고, 세금)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

□ 경산성, 「국내입지 추진사업」 개요

- 동북대지진으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, 서플라이체인의 중핵인 부품소재분야와 일본의 고용을 유지하는 고부가가치 성장분야의 생산거점을 지원함으로써,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
- 지원대상은 △대체할 수 없는 부품소재분야, △고용을 유지하는 고부가가치분야, △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748사가 신청하여 이 중 245사를 선정하였으며, 지원 규모는 약 2,023억 엔임
- * 기업선정기준은 △고용창출효과, △해외유출 우려 정도, △서플라이체인 강화에 공헌, △경쟁력·기술력, △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심사
- 지원 비율은 대기업은 제조설비 투자의 1/3, 중소기업은 1/2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

- 경산성은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의 6배인 약1조2700억 엔의 설비 투자 효과와 매년 약4~5조 엔의 수요창출과 약2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□ 서플라이체인 강화 지원 대상기업 선정

- 경산성은 2월2일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한 국내입지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발표
 -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소재분야는 전자기기와 자동차핵심부품을 생산하는 140개 거점을 선정
 - * 스미토모백라이트가 스마트폰 반도체기반공장을 도치기 현에, 자동차부품기업인 오오카기연이 북해도 무로란시에 생산거점을 분산
 -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분야는 전기자동차의 차세대자동차 부품, 태양광발전설비 업종으로 도레이의 에히메공장 탄소섬유 증산 투자하는 등 90개 거점을 선정
 - * 탄소섬유시장점유율 40%로 세계1위 기업인 도레이는 해외에서 공장유치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,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국내투자를 결정
 - * 카테터 생산거점인 테르모 등 라이프이노베이션분야의 국내투자도 지원

□ 시사점

- 경산성이 발표한 국내입지 유도정책은 최근 일본의 부품소재대표 기업들의 잇따른 국내공장 폐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임
 - 금년 들어 TDK가 휴대폰 전자부품제조 공장 3개를 폐쇄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실리콘웨이퍼 제조기업인 SUMCO가 국내공장 2개를 폐쇄하고 태양전지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기업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음
 -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일본정부는 국내입

지 유도정책을 향후에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

- 일본정부의 국내입지 지속을 위한 정책은 전력부족, 엔고, 세금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의 부품소재 및 성장산업의 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,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, 일본기업의 강점인 기술유출에 대해 지적재산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일본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
- 일본 기업들은 수요기업인 한국 대기업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중국,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2.3). 「国内工場投資 1兆2700億円 経産省, 補助金交付の240事業決定」
 経産省 2012年度「国内立地推進事業費補助金の採択結果について」(2012.2.3)